대만 섬유 산업 - 고기능ㆍ고부가 가치화 및 산업 섬유 개발에 주력

대만의 섬유 업계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실시된 쿼터 프리 체제로 바뀌는데 따라 섬유의 고기능ㆍ고부가 가치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쿼터 프리로 대만은 광범위한 수출 기회를 맞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겪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어패럴 등의 하류(down-stream)분야는 쿼터에 의한 보호가 사라져 경쟁 상대와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만은 선진국 수준의 고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어패럴이 생산 코스트가 높아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 동안 대만이 수출해 온 어패럴의 95%는 쿼터 등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쿼터 프리 후로는, 종전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경쟁 상대와의 직접 경합이 한층 치열하게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WTO에 중국과 함께 가맹하면서 시장을 개발하자, 중국, 한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섬유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만의 섬유 산업은 중국 대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리 운영이나 연구 개발 등의 본사 기능은 대만에 남겨 놓고, 생산 기지는 최적지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대만 섬유 산업을 글로벌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외에 기술의 차별화 → OEM(상대 브랜드로 생산)에서 ODM(자사 디자인

생산) 또는 OBM(자사 브랜드 생산)으로의 발전 → 전자화에 의한 QR(Quick Response) 강화 → 국제 시장 개척을 위한 고기능 섬유품 인증 제도 등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의 개발ㆍ확대와 산업 섬유의 용도 개발이 대만 섬유 산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관민(官民)이 함께 개발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전자, 정보, 토목, 교통ㆍ운수, 의료ㆍ위생, 농업, 레저 등의 각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의 산업, 가정, 의료용 텍스타일을 개발하여, 추격해 오는 중국 제품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면서 구미일(歐美日)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매년 경제성 기술국 주최로 "국제 섬유 포럼 및 이그지비션(TIFE)을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여러모로 비교되어 참고로 소개해 본다.

TIFE에서는 파이버와 텍스타일 영역에서의 국제적 전문가나 기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첨단의 섬유 과학 기술이나 비즈니스의 동향을 배우고 있다. 2004년도 TIFE의 테마는 새로운 파이버와 텍스타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선진국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가이며, 특히 새로운 소재의 창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다우 케미컬사의 플라스틱 연구 개발 담당 부사장은 "화학품과 고분자의 새로운 기회의 창조"에 관한 기조 연설과, 이 연구소의 "속도에 기반을 둔 연구 개발"을 소개하면서 대만에 이 연구소의 연구 개발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의 머티어리얼 공학 전공 교수는 "지능형 나노 재료의 응용과 발전"과 교토대학 대학원 공학 연구과 교수는 "셀룰로스를 포함한 바이오 고분자의 정밀 합성을 위한 효소 중합", 고휘도광 과학 연구 센터 유저 서포트 코디네이터 교수는 "지능형 고분자 섬유

재료 기술과 그 응용”을 강연하였다.♣